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라인의 확장

블랑팡은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에 3개의 새로운 시계를 선보입니다. 블랙 세라믹 소재 바티스카프(Bathyscaphe)의 스포티하고 당당한 스타일을 자랑하는 신제품은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와 두 가지 쓰리 핸드 데이트 모델로 라인을 완성합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다이얼이 장착된 이 새로운 시계는 최근 선보인 하이테크 세라믹 브레이슬릿을 포함한 다양한 브레이슬릿/스트랩 옵션과 함께 제공되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일상적으로 착용하면서도 해저를 탐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바티스카프는 1956년 아이코닉한 피프티 패덤즈의 도시적 분신으로 탄생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첩하고 다채로운 개성을 지닌 이 라인은 사무실에서의 하루, 스포츠 휴가 또는 격식 있는 저녁 모임에 모두 잘 어울리는 진정한 도시의 카멜레온입니다. 새로운 바티스카프 모델은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를 통해 전천후 특성을 더욱 강화하고, 선레이 마감 처리된 선명한 색조의 앞면으로 컬렉션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새로운 모델의 케이스에 사용된 블랙 세라믹의 강력한 아이덴티티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블랑팡이 개발한 다이얼은 이를 쉽게 해결합니다. 미묘한 그라데이션과 선레이 마감으로 뛰어난 빛의 향연을 선사하며 독특한 균형을 이룹니다. 첫 번째 쓰리 핸드 데이트 시계에는 딥 그린 다이얼이 생동감을 부여하고, 동일한 유형의 두 번째 모델과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에는 깊은 바다를 관통하는 태양 광선을 연상시키는 블루 컬러가 다이얼을 장식합니다.

직경 43.6mm에 견고한 고성능 칼리버 1315(쓰리 핸드 데이트 모델용)와 F385(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용)로 구동되는 새로운 바티스카프는 한 방향 회전 베젤과 30기압 방수 기능을 갖춘 다이버 위치의 유산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의 출시로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라인은 올해 초 출시된 세라믹 시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이제 세 가지 레퍼런스(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쓰리 핸드 데이트, 문페이즈 폴 캘린더)와 세 가지 다이얼(블루, 그린, 블랙), 다양한 스트랩(세일클로스, 세라믹, NATO)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칼리버 1315: 정확성, 신뢰성, 성능

새로운 쓰리 핸드 데이트 바티스카프의 심장에는 자체 제작한 칼리버 1315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크로노미터 성능을 자랑하는 이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블랑팡

시계에 사용되는 모든 무브먼트와 마찬가지로 설계, 제작, 생산, 조립 및 조정이 모두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직렬로 장착된 3개의 배럴 덕분에 5일이라는 인상적이고 지속적인 파워리저브를 제공하며, 스톱 세컨즈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시간을 매우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NAC 코팅 처리된 18캐럿 골드 로터가 장착된 이 칼리버는 파인 워치메이킹 전통에 따라 완전히 장식되었습니다.

칼리버 F385: 고주파, 높은 정확성

바티스카프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의 심장인 고정밀 블랑팡 F385 칼리버는 수직 클러치가 장착된 복잡하고 고급스러운 칼럼 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불규칙한 움직임 없이 크로노그래프의 완벽한 시작과 멈춤을 보장합니다. 5Hz의 고주파수로 작동하는 이 칼리버는 50시간의 파워리저브를 제공하며 1/10초까지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플라이백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기존 크로노그래프에서 메커니즘을 정지, 재설정, 재시작하기 위해 두 개의 다른 푸시버튼을 세 번 눌러야 했던 것과 달리 한 번만 눌러도 현재 시간 기록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시간 기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 바티스카프 라인에 잘 어울리는, 스포티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

견고하고 젊고 역동적인 DNA를 지닌 바티스카프 라인은 스포티하고 현대적인 룩이 돋보입니다. 대담하고 혁신적인 이 라인은 블랑팡의 기술 혁신이 집약된 완벽한 라인입니다. 이러한 정신에 충실한 하이테크 세라믹은 이 라인의 이상적인 소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스크래치에 매우 강하며 저자극성인 하이테크 세라믹은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거의 5배 더 단단하지만 25% 더 가볍습니다. 따라서 착용자가 일거수일투족에 걱정할 필요 없이 일상에서 간편하게 착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1400°C 이상에서 소성하는 동안 부피가 25% 줄어든 하이테크 세라믹은 라인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측면을 반영합니다. 전문가들의 탁월한 마감 처리가 돋보이는 블랑팡의 하이테크 세라믹은 비할 데 없는 방식으로 빛과 조화를 이루며 바티스카프 라인의 현대적인 미학을 반영합니다.

특허를 획득한 복잡한 세라믹 브레이슬릿

세라믹 소재의 파인 워치메이킹 브레이슬릿 제작은 매우 복잡합니다. 브레이슬릿은 링크가 너무 느슨하면 미관상 좋지 않고, 너무 조이면 끊어질 수 있으므로 엄격한 공차를 준수하도록 링크를 완벽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서로 닿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캠 모양의 핀으로 링크를 장착하는 특허 시스템을 갖춘 블랑팡의 블랙 세라믹 브레이슬릿은 3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완벽한 편안함과 뛰어난 저항력을 제공합니다.

다이빙과 안전: 회전 베젤

1952년, 당시 블랑팡의 CEO였던 장-자크 피슈테르(Jean-Jacques Fiechter)는 자신의 위험했던 다이빙 경험을 통해 안전한 수중 시간 측정 장비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해결책은 1953년에 제작된 최초의 진정한 다이버 워치인 피프티 패덤즈에 스쿠버 다이빙에 특화된 눈금이 새겨진 잠금식 회전 베젤을 장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단방향 회전 베젤이 사용되어 시계에 안정감을 더하며, 조작 시 부드러우면서도 힘 있는 ‘딸깍’ 소리를 냅니다.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에도 이 베젤이 사용됩니다. 3개의 새로운 시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블랙 세라믹 베젤 위에 자리한 인서트는 다이얼의 톤과 조화를 이룹니다. 강렬한 블랙 또는 딥 그린 컬러는 매혹적인 블루 또는 그린 선레이 그라데이션과 어우러져 강렬한 색감을 선사하며, 그레이 컬러의 리퀴드메탈(Liquidmetal®) 인덱스로 장식된 인서트와 대조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도시적인 스타일이 돋보이는 베젤은 충격에 매우 강하며, 조작 시 깔끔하고 파워풀한 ‘딸깍’ 소리를 내며 움직입니다.

실리콘 혁명

21세기 초 워치메이킹 세계에 진정한 혁명을 불러온 실리콘은 시간 측정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실리콘은 변형 없이 탄성을 유지하며 단단하고 가벼우면서도 부식에 매우 강합니다. 특히 자성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해 시계의 정밀성을 보장하는데 탁월한 소재입니다.

1950년대에는 시계의 밸런스 스프링에 주로 금속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초기 피프티 패덤즈 모델에는 무브먼트를 자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철 소재의 내부 케이스를 탑재했습니다. 오늘날의 피프티 패덤즈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갖추고 있어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무브먼트의 독특한 구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탑재된 3개의 새로운 바티스카프는 메커니즘의 고품질 마감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소재 덕분에 뛰어난 크로노미터 성능을 자랑합니다.